



“은빛 열정은 식지 않았다”

대구 남구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수료증 전달... 봉사·나눔 약속

“나는 건강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어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민방위훈련장에는 2주에서 2달 정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교육을 수료한 어르신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남구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남구청 대덕노인복지회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대식에는 이신화 남구청장,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수료증 전달식, 지역참여와 봉사, 나눔과 순환의 정

신을 약속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선서식, 사업단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층과 복지계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활동의 지원을 뛰어넘어 노인들이 노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문화 제공분야를 즐기는 노후 생활을 스스로 만들고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의 지역적 가치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남구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숲 해설 사업, 문화해설 사업, 햇빛촌 손편지 사업, 청춘실버택배 사업단, 행복한 나눔장터가게 등의 사업단을 두고 꾸준한 교육과 모임을 통해 노인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참여하여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천년고찰 앞 고층아파트 ‘웬말’

(주)경동, 승인 얻어 공사 시작
범어사 비대위 ‘건립 막아낼 것’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앞에 또 다시 고층 아파트의 건립 허가가 나 범어사가 해당 관청에 강력항의하고 나섰다.

(주)경동이 경동아파트 옆에 2차 경동아파트 건설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작하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범어사가 구청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1995년 건축한 현재의 경동아파트 때문에 수려한 금정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찰경내 입구 경관이 훼손되면서 국내외인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서시는 범어사측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한 것

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어사는 “종단과 전 문중의 스님 및 불교신도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차 경동아파트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동은 6월 9일, 범어사를 방문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범어사는 중무회의를 거쳐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과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수평환경을 훼손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호국영령 천도재



한 기독교인 제안으로 봉행
지역 군인들 공양으로 회향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천도재를 지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에서 기도회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절에서 하는 천도재 형식의 의식을 치러주고 싶다는 마음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당에는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산화한 모든 영가들과 6·25 때 파병된 미군 영가, UN군 영가를 비롯한 6·25 때 산화한 일제 모든 영가를 위한 영단이 차려졌으며 1천700송이의 국화꽃으로 장식됐다. 이날 천도재는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 회향됐다. 배지선 기자

소림사 내 입주단체 축구대회



“소림! 소림! 소림 파이팅!”

6월 6일 초량 초등학교, 대학생, 청년, 보살 할 것 없이 손을 모으고 파이팅을 외쳤다(사진). 이들 모두는 소림사 불교회관에 입주해 있는 신행단체 회원들. 대학생불교동맹부 부산지부(부장 장영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회장 류상길), 소림청년회(회장 조재호), 소림사신도회 등 소림사 불교회관 내에 입주해있는 단체의 회원들이 첫 합동 체육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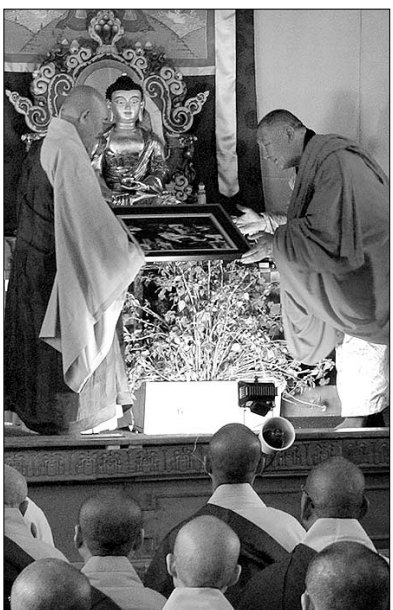
대불련 부산지부 대 대불청 부산지회의 축구경기가 시작되자 패기로 뽄뽄 뽄뽄 대불련 후배들은 대불청 선배들과 운동장을 달리며 비지뽄을 흘렸다. 장영길 대불련 부산지부 지부장은 “한바탕 경기를 하고 나니 어떤 일이나 한마음으로 힘 모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관음사 환희불교복지대 입학식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 환희불교 복지대학은 6월 8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제1기 불교교리반 입학식을 가졌다.

매주 화, 수요일에 수업을 갖는 불교교리반은 송광사 승가대 강주 도암 스님, 송광사 승가대 학장 원경 스님, 송광사 율원 율감 정원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등이 강사로, 불교복지, 부처님 가르침, 계율의 이해, 자원봉사, 발심수행, 불교역사, 보조조사 선사상, 사경하는 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불교 위해 한·몽 같이 나갑시다



동화사, 성지순례 우호 다져
스님 장학생 선발 공부 지원

대구지역 불교계가 한국과 몽골불교계 간의 교류 확대에 새 장을 열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150여명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몽골불교성지순례를 갖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와 우호를 다졌다. 한국과 몽골 불교계는 △양국 불교의 비교 연구 △양국 스님들의 교류 △불교 대학간의 교류 △불교 유물에 대한 연구 등 4가지 사항의 교류 협력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몽골측에서는 ‘몽한불교교류협회’를 결성해, 지난해 출범한 한몽불교교류협회와 활발한 교류를 펼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몽골 간단사의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몽골방문에서는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몽골 불교계 주요 스님들과 몽골 정부 관료, 현지 고 있다.

교인들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을 갖는 등 양국 불교계간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6일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봉행된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는 동화사 지성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장영관 조계종 9교구 신도회장 등 대구지역 불교계 인사와 간단사 주지 초이참츠 스님 등 몽골 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한국과 몽골문화의 주인공은 불교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우호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초이참츠 스님은 “한국과 몽골 모두 오랜 불교역사를 갖고 있어 불교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한국방문단은 몽골 불교계 증흥을 위한 기금과 어려운 몽골인을 돕기 위한 생필품 110박스를 전달했다.

동화사는 이번 몽골 순례를 계기로 매년 3~5명 정도의 몽골스님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영·호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영·호남 종교인 친선 교류와 화합을 위해 영호남 종교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였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 주최로 6월 10~11일 부산에서 열린 영·호남 종교지도자 모임은 8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미나, UN 공인 참여 및 순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제 등의 공식 일정과 삼광사, 원불교 부산교구 초청 오찬 등의 시간을 통해 영호남 종교지도자들의 화합을 다졌다.

특히 10일 오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APEC 성공 개최와 지방분권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황한식 박사의 주제 강연과 각 종교 지도자들의 주제 발표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통영사람련, 대구도 방생법회

통영불교사암주지연합회(회장 선곡)와 통영시는 6월 9일 제2회 세계평화 기원을 위한 수륙대제 및 방생법회를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도남관광지에서 열린 식전행사와 개회식 및 법회에 이어 옥지면 연화도 용머리대역에서 가진 어류방류로 회향된 이날 방생법회는 양식 어류 판매와 방류사업을 불교의 방생법회와 병행한 행사로 관심을 모았다. 호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생법회는 선곡 스님의 대회사, 고산 스님의 법어, 진의장 통영시장의 격려사, 우담 썬게사 주지 격려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2천여 사부대중이 전국에서 참여해 방생의 참뜻을 새겼다. 천미희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껏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라니

금주 의발원

오늘하루 보다고운 땀씨에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말씨에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숨씨에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맘씨에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엄불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참회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공부하게 하옵소서